

## 참교추계사만

##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정중남 목사 | 하늘가죽교회

하늘가죽교회는 서울 끝자락(금천구)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는 2007년에 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했고 이제 15년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가죽교회는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에 제가 급히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하늘가죽교회를 섬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담당하여 목양하는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나 다짐 또는 계획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한 주 한주가 지나갔습니다. 교회는 안정되기 보다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섬기고 있는 저조차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설교 사역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주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뒤적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강단에서 설교 할 내용들을 '수집'하여 전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바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참교추'와 박순용 목사님에 대해 듣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참교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섬겨 주신 참교추 여러 동역자들의 이해와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참교추는 저에게 '참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설교

에 대해서도 방향하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때, 정말 감사함이 큼니다.

반면 제 안에 있었던 부끄러운 마음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습니다. 한동안 저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며 사역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은 좁은 길이며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보다는 내 열심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안에 은근한 우울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내심 정죄하고 옳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갈 6:14)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가죽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늘 영광과 소망의 복음, 천국의 복음으로 넘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자리하기를 열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신년감사예배, 부활절, 감사절에 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다 함께 성례에 참여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매우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

## 『참된 교회를 바라고 소망하며』

한명수 집사 | 하늘영광교회

제가 하늘영광교회에 온 지도 8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참교추를 섬기는 부서인 (참교추 지원팀)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영광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동안, 참교추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닌 참된 교회의 중요성과 긴급성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란 책을 통해 더욱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정신과 진리 왜곡이 우리 삶에 정말 깊숙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 교회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또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리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돌아켜보면 이런 일들은 비단 오늘 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순전한 복음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또한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위로와 안정, 병의 치유, 물질의 축복 등을 들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이러한 교회들의 영향을 깊게 받은 듯 보입니다. 아직 순전한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자신

의 헌신적인 섬김 속에서 만족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크게 주목하고 끊임없이 행위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마케팅교회와 이머전트 교회들을 모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길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얼마나 더 생겨나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질 일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참된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어두운 밤하늘에 길을 비춰줄 별빛과 같습니다. 매마른 사막에서 만난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공동체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심지를 고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리에 따라, 교회들이 다시 생기를 찾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된 특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복된 진리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늘가죽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공급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생생하게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매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현재 위치한 장소(금천구청역)로 교회의 예배처소를 옮겼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 새가족들이 꾸준히 방문하시고 등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퍼지고 난 뒤에 이러한 일들이 잦아들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가졌던 전도의 계획들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안에 계속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머리가 어지럽고, 간간히 이명 증세를 심하게 동반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기에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교회의 직분자들의 신앙의 굳건함을 위해, 또한 늘 씩씩 없이 고생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보다 더욱 크고 놀라우니, 그 은혜를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들이 용이하게 세상 풍조와 맞서게 되기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교리들을 수호하고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신실한 믿음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독재자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크신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참교추와 함께 하겠습니다. 참교추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곳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겠습니다.



## 참교추 칼럼

##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귀로 듣는다 할지라도 들은 바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 속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리진 말씀에 진실히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2700년 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사 6:9).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약 100년 후,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렘5:21). 사람들은 여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선포 되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6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요8:43). 예수님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고 있지만, "들을 수 없었다(you are unable to hear)"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이 마무리 되어 갈 무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과 동일함을 보았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행28:26-27).

하나님의 말씀(성경)은 분명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읽고, 듣는 모두가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같은 일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마치 자신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듯 이리저리 지식적

인 이야기들을 늘어 놓고 비판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 없는 자연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듯 동양철학과 비교하며 TV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연의 내용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고, 배움이 전혀 없는 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들음이 아닌 들리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순전히 반응하는 특별한 역사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 신앙 서적을 읽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진정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은혜롭게 들리진 말씀을 단순한 '칭취'가 아닌 삶의 진실한 반응을 갖게하는 '들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한 '칭취' 수준에서 듣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단순 칭취자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 또한 스스로를 엄중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감시히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진실한 듣는 자의 중심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전하고 있는 지 돌아봄은 유익할 것입니다.

## 月刊 참교추

2021년 2월호 통권 1호

## News

## 2월 정기모임

- 2월 15일 (월요일) : 10시 30분
- 오직 하나님께 영광 1-4장
- 삼위일체와 구속언약 125-176 page

## 5월 정기세미나

- 5월 24-26일 (월-수)
- 개혁 신앙의 정수(애드워드 피셔)
- 거듭남과 십자가 1-3과



광야의생교회



생활교회



은혜의숲교회



주님의숲교회

## ♣ 참교추 일정안내

|        |                         |
|--------|-------------------------|
| 정기 모임  | 매월 3번째주 월요일 (2월 15일)    |
| 정기 세미나 | 5월 마지막주 월-수 (5월 24-26일) |
| 컨퍼런스   | 10월 마지막주 월요일(10월 25일)   |
| 부부 수련회 | 코로나로 일정 연기              |

## ♣ 참교추 홈페이지

www.forttruechurch.com

## ♣ 신입회원 소개

|                  |                 |                  |
|------------------|-----------------|------------------|
|                  |                 |                  |
| 김선민 목사(43, 김포시)  | 김성민 목사(27, 양사동) | 박경태 전도사(30, 양산시) |
|                  |                 |                  |
| 박지성 강도사(44, 양사동) | 안기문 목사(53, 포천시) | 오준석 목사(38, 삼천동)  |
|                  |                 |                  |
| 이희석 목사(41, 시흥동)  | 조현식 목사(47, 고양시) | 황병진 목사(46, 상봉동)  |

## ♣ 2021년 회원교회

- 광명민음교회
- 광야의생교회
- 높은뜻교회
- 두루선교회
- 물대동산교회
- 백마누리교회
- 생철교회
- 세계로교회
- 송경교회
- 심품교회
- 양무리교회
- 영남교회
- 오빈교회
- 은혜의숲교회
- 주님의숲교회
- 참사랑교회
- 충만한교회
- 하늘가죽교회
- 하늘기쁨교회
- 하늘영광교회
- 함양민들레교회
- 버림없는인교회

## 추천도서



## 헤르만 바빙크의 찬송의 제사

헤르만 바빙크 / 도서출판 다함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신학 역사에 매우 중요한 신학자라는 평가와 함께 평신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신학자라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제사'는 그러한 오해가 말끔히 씻기도록 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원문의 부제는 '성만찬에 들어가기 전후의 묵상'입니다. 신앙고백의 본질과 의미, 실천을 교회 언약 공동체의 은혜의 방편인 성례의 의미를 통해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잔잔하게 그려내는 책입니다. 바빙크는 우리의 신앙고백의 근거와 기초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음을 밝힌 뒤,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귄데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성만찬을 묵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과 열려, 또 죄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굳어진 심령을 가진 이가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부요함을 만끽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